

SNU e-TL의 출발에 즈음하여

1. 왜 e-TL을 사용해야 하는가?

e-TL(이티엘, e-Teaching & Learning)은 서울대학교에서 2006년도 2학기부터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습관리시스템(LMS, Learning Managing System)이다. e-TL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서울대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이다. 강의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블렌딩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. 학생들에게는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던 기존의 수업방식보다 학습량이나 과제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, 이도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을 질적, 양적으로 풍부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서울대인을 만들 고자 함이니 불평에 앞서 어떻게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다.

다음 학기부터는 교무처에서 학생과 교수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e-T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. 그리고 e-TL 역시 우리의 대학 사정과 교육 환경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. 어떤 프로그램이든 마찬가지지만, e-TL을 더 쉽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초기 단계에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. e-TL 홈페이지(<http://etl.snu.ac.kr>)에서는 웹상에서 e-TL 학생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, 간단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

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학생과 교수는 e-TL을 통해서 교실 강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상호작용을 경험한다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. 초기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평이 이해로 바뀌고 이어 감동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지켜보아온 교수학습개발센터의 e-Learning 지원부는 힘든 고생 속에서도 이러한 사용자들의 변화로 인해 보람을 맛보고 있다. 그러므로 교실 수업에 추가하여 귀찮고 번거로운 또 하나의 과제가 더 생긴 것이라고 인식하지 말고,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관리하여 더 높은 성취를 얻도록 도와주는 매니저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e-TL을 적극 활용해 보자.

2. 왜 e-TL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

■ e-Class보다 나아진 게 무엇인가요?

- 기존 e-Class 에서 제공하던 것 외의 추가 기능 및 차이점이 매우 많지만,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.
- 교수자의 선택에 따라, 강좌별로 유형별(초급/중급/고급) 메뉴 적용 가능.
 - 용량의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무수히 많은 수업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.
 -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, 이들 모두 성적 처리 시스템으로 자동화가 가능.
 - 교재의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.(e-Pack)
 - 강의 자료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.(DRM 시스템 자동 적용)
 - 한국어 이외의 11개국의 다국어 지원 : 한국어, 네덜란드, 독일어, 영어(미국), 영어(영국), 중국어(제공예정), 스페인어, 이탈리아어, 일본어, 프랑스어, 핀란드어
 - 문자서비스(SMS)를 통하여 수업 공지 및 과제 제출 기간 등의 중요한 수업 관련사항을 알릴 수 있음.
 -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습현황트래킹 시스템이 제공.

■ 시스템은 안정적인가요?

이러닝 지원부는 e-TL의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불안정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. 다만, 간혹 학교에 정전이 되거나 네트워크 상에 문제가 생기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, 이것은 e-TL의 문제가 아닌 다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다. 개별 PC의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접속이 안 되거나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전화(880-5046)로 문의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

이혜정
(e-Learning 지원부 선임연구원)

■ 왜 포털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? 바로 로그인 할 수 있게 포털 홈에 띄워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?

서울대정보화포털과 분리여부에 대한 결정은 e-TL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전산원에서 담당하고 있다. 사용자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다음 학기부터는 e-TL이 서울대정보화포털 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중앙전산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.

■ 글도 수정이 안 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?

수정은 당연히 가능하다. 다만 수강생이 자신의 글을 수정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읽기만 가능하게 할 것인지는 교수자가 게시판을 개설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따라서 이 부분은 교수의 재량이므로 담당 교수님께 문의해야 한다. 또한 삭제와 관련하여서는, 수강생은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, 교수 및 조교에게만 글 삭제 권한이 있는데, 이것은 수강생들의 학습현황이 모두 추적되는 학습현황 트래킹 시스템 때문으로, 학습현황 트래킹 기록이 남아 있는데 나중에 학생이 글을 삭제하게 되면 트래킹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. 또한 이 부분은 후에 모두 성과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수강생 본인이 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게 된 것이다.

■ 게시판의 새 글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아래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?

e-TL은 신속한 보도나 뉴스를 봐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. 따라서 게시판에서 먼저 올린 글들을 보고 그 맥락을 고려하여 최근 글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는 것이 보다 교육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새 글이 아래로 가도록 개발된 것이다. 새 글은 여차피 찾아서 읽게 되지만, 이전 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일부러 찾게 되지 않는데, 교육현장에서는 이전의 학습 히스토리를 계속 상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. 다만 조금 더 사용에 편리하게 하려면, 처음부터 최근 글까지를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(다음 페이지를 클릭해야 다음 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) 할 수 있다. 모든 게시판의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수를 설정하는 아이콘이 있는데, 이를 999로 지정하면(현재는 10으로 설정되어있음) 대부분의 글을 한 페이지에 볼 수 있다. 또한, 그 상태에서 '등록일'이란 단추를 클릭하여 내림차순, 오름차순으로 바로 정렬이 가능하다.

그러나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할 경우, 다음 학기부터는 새 글이 제일 위로 오는 시스템으로 설정을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

■ 메뉴가 너무 복잡해요.

새로운 이러닝 서비스를 위해 e-TL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이클래스 시스템의 기능상 제약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. e-TL의 도입으로 다양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, 기존의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. 이를 위해 일단 모든 메뉴 아이콘에 설명을 해주는 말풍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. 말풍선 기능을 포함하여,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시스템 투어나 메뉴별 매뉴얼 및 배포자료를 활용해 보면 좋다. 또한 번거롭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“e-TL 따라잡기 워크숍”에 참여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e-TL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.(워크숍 문의: 880-5391)



■ 학번 노출

학번이 보이는 이유는,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름 대신 학번을 e-TL 시스템의 아이디로 설정했기 때문이다. 다음 학기부터는 개선 작업을 통해 학번의 일부를 가리는 등,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